

은암미술관 '재현과 상상의 경계' 사진기획전...오는 26일까지

이미지의 경계서 마주하는 내면의 대화

사진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매체로 진보하고 있다. 기록을 목적으로 하는 재현적 이미지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외부 자극에 의한 새로운 이미지와 마주하며 재현과 상상의 경계를 명료하게 만들거나 모호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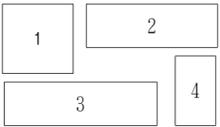
박세희·이세현·황정후 등 참여 작가컬렉티브 'AES+F' 작품도

이런 가운데 사진을 매개로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미지의 경계에서 작품이 이끄는 힘을 드러내는 은암미술관 사진기획전 '재현과 상상의 경계'전이다.

이번 전시에는 박세희, 이명호, 이세현, 이정록, 최희정, 황정후, 4명 작가가 구성된 AES+F 까지 총 10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먼저 박세희 작가의 작품은 실제 생활 속 이뤄지는 모습과 경험들을 통해 특이한 이미지의 재현이 주를 이룬다. 관객들은 작가로부터 시작됐고 작가를 통해 여과돼 탄생한 이미지들을 마주한다. 그리고 경험과 해석에서 새로운 재현이라는 과정을 겪게 한다. 박세희의 작품을 바라보는 관람자는 어느새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명호 작가의 사진 이미지는 재현 불가능한 것들을 재현하기 위해 자기 내부의 빈 공간을 드러낸다. 사진 작업에서 표현되는 빈 공간은 익숙한 공간을 낯설게 하고 사진이 재현하는 것 이상의 실재를 드러낸다. 모든 인상으로부터 자신을 제거함으로써 빈 공간은 '의미 없는 공간'에서 상상의 공간으로 자리를 내어줘 빈 공간을 대면하게 만든다.



1. 박세희작 'Lockdown Kinfolk', 2. AES+F작 '신성한 우화, 쌍둥이', 3. 이세현작 '고성', 4. 황정후작 'Fruit'



이세현 작가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사진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한다. 사건이 있었던 장소에서 돌을 던지는 행위를 사진으로 담아내고,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는 역사성과 장소성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킨다. 지나온 과거에 다시 돌을 던지는 행위를 통해 장소가 지닌 역사가 상기되며 새롭게 각인된다.

이정록 작가는 '빛'을 제어하는 방법을 통해 작품에 '빛'이라는 색을 입힌다. '빛'의 변화를 제어하며, 현실 세계 너머의 세계를 '빛'으로 그린다. 이러한 행위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자 몸으로 체험한 긍정적 에너지를 전하는 행위다.

최희정 작가는 사진 매체로 이미지와 이야기를 수집하고 사유한다. 지역을 기록하고, 기록된 지역의 시간적 프레임 안으로 순간적 우연을 담아낸다. 사진은 기억을 되살리며 새롭게 재현된다. 사진이 주는 재현은 압축된 감정으로 관람자에게 다시 되돌아온다.

황정후 작가는 보이지 않는 어떤 감춰진 것을 보이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다. 그의 작업은 객관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과는 상이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즐거움과 생각할 여유를 준다. 혼란된 이미지들에 대한 다양한 관객들의 개별적인 반응을 통해 모든 사람, 모든 것들과 내면의 대화를 시도한다.

AES+F는 아르자마소바, 예브조비치, 슐비야츠키, 프리드케스 작가가 구성원으로 함께 한다. 각각 다른 분야를 전공한 아티스트 네 명으로 구성된 러시아 출신 작가 컬렉티브다. 그룹명은 각 구성원의 이름 첫 글자를 따서 만들었다. 영상·설치·사진·조각 등을 통해 관습적 사고에 대한 전복과 창조적 자유를 실천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 고전의 패러디를 통해 인류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주제들로 작업하며 초현실적인 광경을 연출한다.

전시는 오는 26일까지. /최명진 기자

내 깊은 그리움을 그대에게 부칠 수 있으면만



장희구 박사 (467)
漢詩 향기품은 변안시조

偶吟(우음)

송강 정철

흐르는 물은 골짜기에서 나오고
아득히 먼 곳으로 어디로 가는지
한강에 내가 이르면 깊은 정 부처리.

流水峽中出 何所之所之
류수협중출 초초하소지
爾能達江漢 吾欲寄幽思
이능달강한 오욕기유사



시인은 선경(先景)이란 첫 시상에서 물의 근원은 어디에서 출발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묻는 넉넉함을 보인다. 흐르는 물은 골짜기에서 나와서 아득하게 먼 어느 곳으로 가는 것인가라고 했다. 덧없이 흘러가는 진정한 물의 근원을 알고 싶었던 모양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지만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화자는 물의 흐름과 연결이 바뀌는 상황을 모조리 알고 싶었음을 은근하게 내비치는 시상을 떠올린다. '자네가 능히 한강에 이르게만 된다면, 내 깊은 그리움을 그대에게 접어서 부칠 수 있으면만'이라 했다. 흘러가는 물에 자기의 깊은 뜻을 부쳐보려는 심사가 한강이라는 또 다른 상관 대상자의 흐름으로 덧칠하는 멋을 부려낸다.

*한자외어구

流水: 물이 흐른다. 峽中出: 골짜기에서 흘러나오다. 所之: 아득하게. 혹은 멀리. 何所之: 어느 곳으로 가는지. (何로 인하여 의문문이 되었음. // 爾: 자네. 2인칭 대명사임. 능: 능히. 達江漢: 한강에 도달하다. 吾: 나는 ~을 하고자 하다. 寄幽思: 그윽한 그리움. 깊은 그리움 혹은 사랑을 뜻함. <시조시인·문학평론가 (사)한국한문교육연구회 이사장>

조선 최고의 가사문학 대가에게도 한가한 마음의 여유가 있었던 모양이다. 그리고 시제를 정하지 못해 마음을 주섬주섬 추스르다가 공색스런 우음이라고 불리고 나서 너무 평범한 시제에 자기도 모르게 '아차', 했을 지도 모른다. 시인들은 어쩌면 생각이 세심한 것 같기도 하더니만, 단조로운 면을 보이고 있어 어린이가 같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아득히 어느 곳으로 향해 가는지, 자네가 한강에 이를 수만 있게 되기를 바라며 읊었던 시 한수를 변안해 본다.

'내 깊은 그리움을 그대에게 부칠 수 있으면만'(偶吟)으로 제목을 붙여 본 칠언절구다.

작가는 송강(松江) 정철(鄭澈: 1536-1593)로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1561년(명종 16) 26세에 진사시 1등을 하고, 이듬해 문과 별시에 장원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갔던 인물이다. 성균관전적 검시 제교를 거쳐 사헌부지평에 임명됐다. 사미인곡, 속미인곡, 관동별곡 등 가사문학의 태두로 널리 알려진다.

위 한시 원문을 의역하면 '졸졸 흐르는 물은 골짜기에서 흘러 나와서 / 아득히 어느 곳으로 향해 가는데 // 자네가 능히 이 곳 한강에만 이르게 된다면 / 내 깊은 그리움을 그대에게 접어 부칠 수 있으면만...'이라는 시상이다.

위 시제는 '우연히 읊다'로 번역된다. 우연한 기회에 우연한 시상을 떠올리는 수가 많지만, 그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시적인 상관자를 두고 그리움으로 뒤범벅이 돼버린 수가 많다. 사람에게 그리움은 정감 표현의 제일로 잡는 수가 많다. 그리움은 곧 정(情)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게 한다. 이렇게 보면 우연의 시상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필연일 수밖에 없으리라.

광주여성가족친화마을, 방학 맞이 돌봄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단체 중심 요리수업 등

광주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친화마을이 방학을 맞아 마을 틈새 돌봄 활동에 나섰다.

각 동네별 주민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방학나기를 지원하고 있다.

먼저, 매곡동 주민자치회는 방학을 맞아 200여명의 아이들과 함께 '언니네 텃밭' 구구마 심

기 체험활동을 펼친다. 아울러 오는 19일까지 초등학생 대상 '도전! 로우웨이스트 체험활동'을 총 6차례 진행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보호활동에 동참한다.

서구 화정3동 '화살콩 파앗'은 요리수업 등 방학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요리수업에서는 아동요리지도사 마을강사가 아이들과 음식을 함께 만들어 나눠 먹는 시간을 갖는다.

동구 지산2동에서는 '무릎 할머니 돌봄밥상'과 할머니들이 전래동화를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며 방학 돌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남구주민회의(둔위리 공동육아)는 효천초 근처 44명의 초등생 가정을 중심으로 매주 월·수·금 점심도시락 배달 활동을 한다. 광주 여성가족친화마을 공모사업 지원금과 신청자정별 월 1만 원 이용비로 지역 반찬가게와 협력해 마련됐다.

광주여성가족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맞벌이 가정 돌봄 공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시민 문화정책 토론회 '문화도시 광주, 백가쟁명'

25일 광주시청 시민홀...19일까지 접수

광주문화재단 시민 문화정책 토론회 '문화도시 광주, 백가쟁명'이 오는 25일 오후 7시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린다.

재단은 지역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존중하고 시민이 발굴한 정책 아젠다를 시정에 개진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시민 문화정책 토론회 '문화도시 광주, 백가쟁명'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사전 신청자 100여명의 시민그룹이 10개 팀으로 나눠 문화예술 분야 7개 의제에 대해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19일까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백가쟁명 토론회 참가자 모집 링크에 접속 또는 QR코드를 스캔해 신청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www.e-dk.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